

특수 교사의 일터 영성이 교직 적응탄력성과 직무 소진에 미치는 영향

김미애, 조성제*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문화예술콘텐츠학과

The Effect of special teachers' workplace spirituality on teacher adaptability and job burnout

Mi Ae Kim, Sung-je Cho*

Department of Culture and Arts Contents, Dongbang Culture Graduate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특수 교사의 일터 영성이 교직 적응탄력성과 직무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데 있다. 연구 대상은 울산시 특수 교사 1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분석 방법은 SPS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 분석, 신뢰도 분석,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변수 간의 인과 관계에 대한 다중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특수 교사의 일터 영성이 교직 적응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일터 영성의 하위요인인 내면 의식, 공동체 의식 요인은 교직 적응탄력성에 긍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터 영성의 하위요인인 소명 의식, 공감 의식, 초월 의식 요인은 교직 적응탄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일터 영성이 직무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일터 영성의 하위요인인 소명 의식 요인은 직무 소진에 부정(-)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터 영성의 하위요인인 내면, 공감, 공동체, 초월 의식 요인은 직무 소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수교사의 일터 영성의 내면 의식, 공동체 의식 요인이 높을수록 교직 적응탄력성이 높아지며, 소명 의식 요인이 높을수록 직무 소진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특수 교사의 직무 소진 감소와 교직 적응탄력성 증진을 위한 방안 마련의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the effects of workplace spirituality of special teachers' on their adaptability and job burnout. The subjects were 108 special teachers at Ulsan City. Frequency, reliability, and correlation analyses were performed using the SPSS 22.0 program,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on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First, an analysis of the effect of workplace spirituality on the resilience of teacher adaptation revealed that inner and community consciousness had an effect on the resilience of adaptation to the teaching profession. However, vocation, empathy, and transcendental consciousness did not affect the resilience of adaptation to the teaching profession. Second, analyzing the impact of workplace spirituality on job burnout showed that vocational consciousness had an effect on job burnout. On the other hand, inner empathy, community and transcendental consciousness had no effect on job burnout. This means that the higher the inner and community consciousness aspects of workplace spirituality, higher the resilience to adapt to the teaching profession, and higher the vocational consciousness, lower the job burnout. This study is expected to provide the basic data for developing measures to reduce the job burnout of special teachers and increase their resilience to adapt to the teaching profession.

Keywords : Special Teacher, Workplace Spirituality, Teaching Adaptability, Job Exhaustion, Community Consciousness

본 논문은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연구과제로 수행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 Sung-je Cho(Dongbang Culture Graduate Univ.)

email: chosj715@daum.net

Received March 16, 2021

Revised April 26, 2021

Accepted July 2, 2021

Published July 31, 2021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의과학과 산업의 발달로 인한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고 있다. 반면, 선천적, 후천적인 문제와 사고로 장애인의 증가는 날로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장애인을 도우며 교육하는 특수교사의 역할과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

따라서 특수교육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른 의미와 관점으로 자체로의 역사, 문화적 실제와 장애아동, 성인이 필요한 교육에 초점을 맞춘 연구의 기반을 갖추어야 하며, 장애아동들은 같은 내용이더라도 일반 아동과는 달리 반복학습이 필요하고, 배운 것을 일반화 시키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특수교육은 개별적인 특성에 맞게 계획되고 집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1]. 이는 이들을 지도하는 특수교사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체적, 정서적 장애를 가진 아동을 대상으로 그들의 장애를 극복하고 사회생활에 적응하도록 하며,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도록 지식 및 기능을 가르치는 자를 말한다[2]. 이와 같이 특수교사의 교사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교직 적응 탄력성은 중요한 변인으로 대두된다.

교직 적응탄력성이란 역경과 위험 상황에서도 적응적인 기능 유지, 결과를 보이는 능력을 교직 적응탄력성이라고 한다[3]. 어려움을 겪을 때 누구나 문제 행동, 일탈 행동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며, 더 많은 위험요소에 노출된 사람들 중에도 역경을 극복하며, 성공적으로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교직 적응탄력성의 의미로 '탄력, 탄성, 복원력 또는 병이나 불행으로부터 빠른 회복력과 쾌활성에 압력이 가해질 때 원래 상태로 되돌아올 수 있는 물질의 유연함과 탄성을 말한다[4]. 특수교사 또한 '개인이 겪는 역경이나 고난을 통해 개개인들에게 동일한 과정적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 위험 요소에 동일한 노출에도 개인의 지각 여부에 따른, 적용의 과정에 어떤 지지를 경험했는가에 따라 문제의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5].

이와 같이 교직 적응탄력성의 중요성과 함께 직무 소진의 변인이 대두된다. 직무소진은 특수교사와 같이 '타인과 교류를 통한 관계를 형성하는 사람들 사이에 나타나는 냉소와 그에 따른 증상, 정서적인 탈진이라고 하였으며, 교사와 같이 타인을 돕는 역할을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일수록 직무 소진의 위험이 높다고 한다[6]. 국외의 선행 연구에서도 살펴보면 특수교사의 직무소진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이들은 낮은 직무만족도, 자기 효능감을 가

진 스트레스에 취약한 조직집단'이라고 한다[7]. 이는 직무스트레스 대처방안성 중에서는 문제중심적 대처방안이 직무소진을 감소시킨다는 것이다[8].

위와 같이 특수교사의 교직성과 대두되는 중요한 변인은 일터영성으로 이는 일터에서의 조직의 문화 또는 리더자에 의한 것이 아닌, 개인의 영성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표현이 되며, 조직원들이 자신의 영성을 일터 내에서 안정감 있는 표현을 얼마나 잘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적인 차이'라고 한다[9]. 개인 중심적 일터영성이 먼저 시작됨으로 특수교사의 직무수행에 일어나는 일터에서의 영향이 미침을 강조하고 있음을 의미한다[10]. 또한 인간의 삶에 대한 의미, 목적을 일과 조직 등의 현장에서 보다는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다[11]. 따라서 특수교사의 일터영성은 '일과 조직의 환경 속에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고 더 좋은 가치 실현을 위해 인간 본연의 심리적인 의식 상태로, 전체적, 통합적 과정'을 말한다[12]. 이는 특수교사의 일터영성은 교직 적응탄력성과 직무소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일터영성은 특수교사에 대한 의미와 목적 등에 관심을 가지면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으로 욕구가 증가하는 것이다[13]. 이와 같이 국내기업직원 239명을 대상으로 일터영성은 직원의 회복탄력과 내재적 동기를 높이는 것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4]. 특히 소진과의 서비스업 종사자의 연계성을 살펴보면 효율적 인적자원개발이야말로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고 소진을 낮춘다는 것이다[15]. 따라서 특수교사의 일터영성과 교직 적응탄력성이 직무 소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밝히고 이 변인들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파악하며, 특수교사들의 교직 적응 탄력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밝혀내는 것은 특수교사의 직무성과의 방향 설정이나 정책적 결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즉 교직 적응탄력성이 직무 소진과의 특수교사의 일터영성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특수교사의 일반적 특성이 일터영성 및 교직 적응탄력성과 직무 소진과의 관계에 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특수교사의 일터영성과 교직 적응탄력성이 직무 소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밝히고자 한다. 그 이유는 이에 대한 연구가 극히 적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특수 교사의 일터 영성이 교직 적응 탄력성과 직무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특수 교육 분야에서 특수교사들의 직무 소진 감소와 교직 적응탄력성 증진을 위한 방안 마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자 한다.

1.2 연구의 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특수교사의 일터영성, 교직 적응탄력성, 직무 소진과의 관계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특수교사의 일터영성이 교직 적응탄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특수교사의 일터영성이 직무 소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20년 03월 10일부터 2020년 07월 20일까지 울산시의 특수교사 1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설문조사는 사전에 연구대상자에게 설문 취지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자기기입식으로 실시하였다. 연구 자료 총 110부의 자료를 수집한 후 연구 자료로 적절하지 않은 설문지 2부를 제외한 108부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2.2 연구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5문항, 일터영성 39문항, 교직 적응탄력성 25문항, 직무 소진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관한 내용은 성별, 학교유형, 연령, 학력, 교직경력 등으로 구성하여 조사하였다. 특수교사의 일터영성을 측정하기 위해 노상충[16]이 사용한 일터영성의 측정도구는 하위요인 내면의식 9 항, 소명의식 10항, 공감의식 5 항, 공동체의식 10항, 초월의식 5 항 총 39항으로 구성하여 각 문항을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교직 적응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해 임연경[17]이 사용한 교직 적응탄력성의 측정도구는 하위요인 자기효능감 6문항, 심리적으로인 5문항, 사회적관계 5문항, 환경 및 생활만족 4문항, 정책적지지 5문항 총 25문항으로 구성하여 각 문항을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특수교사의 직무 소진을 측정하기 위해 임연경[17]이 사용한 직무 소진의 측정도구는 하위요인 정서적 탈진 7문항, 개인적성취감 감소 8문항, 학생에 대한 비인격화 5문항 총 20문항으로 구성하여 각 문항을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2.3 신뢰도

본 연구에 사용된 각 변수의 신뢰도 검증결과, 일터영성의 전체 신뢰도는 .940으로 상당히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일터영성의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내면의식 .931, 소명의식 .919, 공감의식 .930, 공동체의식 .925, 초월의식 .926으로 신뢰도가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교직 적응탄력성의 전체 신뢰도는 .834의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교직 적응탄력성의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자기효능감 .775, 심리적으로인 .792, 사회적관계 .780, 환경 및 생활만족 .830, 정책적지지 .820의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직무 소진의 신뢰도 또한 .804의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직무 소진의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정서적 탈진 .731, 개인적성취감 감소 .752, 학생에 대한 비인격화 .704의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α 값이 최소한의 수준인 .60 이상으로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구체적인 신뢰도 분석결과를 Table 1과 같다.

Table 1. Reliability of key variables

| Classification | | Number of questions | Cronbach α | |
|-------------------------------------|-----------------------------------|---------------------|-------------------|--|
| Workplace spirituality | Inner consciousness | 9 | .931 | |
| | Vocational ritual | 10 | .919 | |
| | Empathy | 5 | .930 | |
| | Community consciousness | 10 | .925 | |
| | Transcendental consciousness | 5 | .926 | |
| Adaptability to teaching profession | Self-efficacy | 6 | .775 | |
| | job factors | 5 | .792 | |
| | Social relationship | 5 | .780 | |
| | Environment and life satisfaction | 4 | .830 | |
| job exhaustion | Policy support | 5 | .820 | |
| | Emotional exhaustion | 7 | .731 | |
| | Decrease in personal achievement | 8 | .752 | |

2.4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 수집된 자료처리는 SPS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유의수준 5%에서 검증하였고, 각 연구도구의 신뢰도 산출은 Cronbach's α 의 계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특수교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빈도분석을 실

시하여 알아보았으며, 특수교사의 일터영성이 교직 적응탄력성과 직무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특수교사의 성별은 남자 36명(33.3%), 여자 72명(66.7%)으로 남자 보다 여자 응답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유형은 특수학교가 66명(61.1%)으로 특수학급 42명(38.9%) 보다 더 많이 응답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40대가 51명(47.1%)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으며, 30대가 29명(26.9%), 50대 이상이 22명(20.4%), 20대가 6명(5.6%) 순으로 조사되었다. 학력은 학사가 64명(59.3%)로 가장 많았으며, 석사 31명(28.7%), 박사 13명(12.0%) 순으로 나타났다. 교직경력 은 6년-10년이 40명(37%)으로 가장 많았으며, 11년-15년이 34명(31.5%), 16년 이상이 23명(21.3%), 4년 이하가 11명(10.2%) 순으로 확인되었다. 특수교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Table 2. Demographic characteristics

| Classification | | Total(N=108) | |
|-----------------|----------------|--------------|----------|
| | | Frequency | Ratio(%) |
| Sex | Male | 36 | 33.3 |
| | Female | 72 | 66.7 |
| School | Special school | 66 | 61.1 |
| | Special class | 42 | 38.9 |
| Age | 20s | 6 | 5.6 |
| | 30s | 29 | 26.9 |
| | 40s | 51 | 47.1 |
| | Over 50 | 22 | 20.4 |
| Education | Bachelor | 64 | 59.3 |
| | Master | 31 | 28.7 |
| | Doctor | 13 | 12.0 |
| Teaching career | Under 5 years | 11 | 10.2 |
| | 6-10 years | 40 | 37.0 |
| | 11-15 years | 34 | 31.5 |
| | Over 16 years | 23 | 21.3 |

3.2 주요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3.2.1 일터영성에 대한 기술통계

특수교사의 일터영성에 대한 측정 변수는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일터영성 요인의 전체는 M=3.99로 평균 점수보다 높게 나타났다. 일터영성의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공감의식(M=4.04) 요인이 가장 높았으며, 소명의식(M=4.03), 내면의식(M=4.00), 공동체의식(M=3.97), 초월의식(M=3.92) 순으로 나타났다. 특수교사의 일터영성에 대한 기술통계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Table 3. Technical statistics on workplace spirituality

| Classification | | N | Min | Max | M | SD |
|------------------------|------------------------------|-----|------|------|------|-----|
| Workplace spirituality | Inner consciousness | 108 | 2.67 | 5.00 | 4.00 | .41 |
| | Vocational ritual | 108 | 2.70 | 5.00 | 4.03 | .39 |
| | Empathy | 108 | 2.40 | 5.00 | 4.04 | .42 |
| | Community consciousness | 108 | 2.60 | 5.00 | 3.97 | .41 |
| | Transcendental consciousness | 108 | 2.80 | 5.00 | 3.92 | .38 |
| | Total | 108 | 2.85 | 5.00 | 3.99 | .36 |

3.2.2 교직 적응탄력성에 대한 기술통계

특수교사의 교직 적응탄력성에 대한 측정 변수는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교직 적응탄력성 요인의 전체는 M=3.62로 평균 점수보다 높게 나타났다. 교직 적응탄력성의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정책적지지(M=3.81) 요인이 가장 높았으며, 사회적관계(M=3.71), 자기효능감(M=3.63), 심리적요인(M=3.55), 환경 및 생활만족(M=3.40) 순으로 나타났다. 특수교사의 교직 적응탄력성에 대한 기술통계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Table 4. Technical statistics on adaptability to teaching profession

| Classification | | N | Min | Max | M | SD |
|-------------------------------------|-----------------------------------|-----|------|------|------|-----|
| Adaptability to teaching profession | Self-efficacy | 108 | 2.50 | 5.00 | 3.63 | .50 |
| | job factors | 108 | 2.40 | 5.00 | 3.55 | .49 |
| | Social relationship | 108 | 2.40 | 5.00 | 3.71 | .48 |
| | Environment and life satisfaction | 108 | 2.25 | 4.00 | 3.40 | .32 |
| | Policy support | 108 | 2.00 | 5.00 | 3.81 | .50 |
| | Total | 108 | 2.64 | 4.80 | 3.62 | .36 |

3.2.3 직무 소진에 대한 기술통계

특수교사의 직무 소진에 대한 측정 변수는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직무 소진 요인의 전체는 M=2.39로 평균 점수보다 약간 낮게 나타났다. 교직 적응탄력성의 하위 요인별로 살펴보면, 개인적성취감 감소(M=2.65) 요인이 가장 높았으며, 정서적 탈진(M=2.38), 학생에 대한 비인격화(M=2.14) 순으로 나타났다. 특수교사의 직무 소진에 대한 기술통계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Table 5. Descriptive statistics on job exhaustion

| Classification | | N | Min | Max | M | SD |
|----------------|----------------------------------|-----|------|------|------|-----|
| job exhaustion | Emotional exhaustion | 108 | 1.00 | 3.71 | 2.38 | .45 |
| | Decrease in personal achievement | 108 | 1.75 | 3.63 | 2.65 | .41 |
| | Depersonalization of students | 108 | 1.00 | 3.60 | 2.14 | .59 |
| | Total | 108 | 1.29 | 3.07 | 2.39 | .41 |

3.3 주요 변수 간의 상관관계

특수교사의 일터영성, 교직 적응탄력성, 직무 소진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특수교사의 일터영성과 교직 적응탄력성은 높은 수준의 양의 상관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r=.778, p<.01$). 반면, 일터영성과 직무 소진 요인은 다소 높은 수준의 음의 상관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r=-.491, p<.01$). 또한 교직 적응탄력성과 직무 소진 요인은 다소 높은 수준의 음의 상관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r=-.552, p<.01$). 이러한 결과는 각 상관계수 값이 통계적 유의 수준 하에서 변수들 간의 관계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Table 6과 같다.

Table 6. Correlation between major variables

| Classification | Workplace spirituality | Adaptability to teaching profession | job exhaustion |
|-------------------------------------|------------------------|-------------------------------------|----------------|
| Workplace spirituality | 1 | | |
| Adaptability to teaching profession | .778** | 1 | |
| job exhaustion | -.491** | -.552** | 1 |

**p<.01

3.4 일터영성, 교직 적응탄력성, 직무 소진과의 관계

3.4.1 일터영성이 교직 적응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사의 일터영성이 교직 적응탄력성에 미치는 영

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교직 적응탄력성에 대한 일터영성의 설명력을 의미하는 R2값이 .621로 나타나 전체 변동의 62.1%로 회귀 모형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D-W(Durbin Watson) 값이 1.373으로 0이나 4에 가깝지 않아 자기상관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공차한계는 0.1 이상이며, VIF 값은 10 이하로 다중공선성이 발생하지 않았다. 모형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추정된 회귀모형($F=33.405, p<.000$)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터영성의 하위요인별로 영향력을 살펴보면, 내면의식($\beta=.220, p<.05$), 공동체의식($\beta=.344, p<.01$) 요인은 교직 적응탄력성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터영성의 하위요인인 소명의식($\beta=.071, p>.05$), 공감의식($\beta=.029, p>.05$), 초월의식($\beta=.203, p>.05$) 요인은 교직 적응탄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수교사의 일터영성 하위요인인 내면의식, 공동체의식 요인이 높을수록 교직 적응탄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수교사의 일터영성이 교직 적응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7과 같다.

Table 7. The effect of workplace spirituality on the elasticity of adaptation to the teaching profession

| Dependent variable | Independent variable | Unnormalization factor | | Standardization factor | t/p | Tolerance limit |
|-------------------------------------|------------------------------|------------------------|----------------|------------------------|---------|-----------------|
| | | B | Standard error | β | | |
| Adaptability to teaching profession | Constant | .555 | .243 | | 2.285** | |
| | Inner consciousness | .191 | .096 | .220 | 1.981* | .302 |
| | Vocational ritual | .066 | .124 | .071 | .532 | .206 |
| | Empathy | .024 | .101 | .029 | .243 | .265 |
| | Community consciousness | .301 | .105 | .344 | 2.859** | .257 |
| | Transcendental consciousness | .190 | .110 | .203 | 1.723 | .267 |

*p<.05, **p<.01

3.4.2 일터영성이 직무 소진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사의 일터영성이 직무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직무 소진에 대한 일터영성의 설명력을 의미하는 R2값

이 .278로 나타나 전체 변동의 27.8%로 회귀모형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D-W(Durbin Watson) 값이 1.743으로 0이나 4에 가깝지 않아 자기상관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공차한계는 0.1 이상이며, VIF 값은 10 이하로 다중공선성이 발생하지 않았다. 모형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추정된 회귀모형($F=17.846, p<.000$)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터영성의 하위요인별로 영향력을 살펴보면, 소명의식($\beta=-.420, p<.01$) 요인은 직무 소진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터영성의 하위요인인 내면의식($\beta=-.064, p>.05$), 공감의식($\beta=-.180, p>.05$), 공동체의식($\beta=.053, p>.05$), 초월의식($\beta=.072, p>.05$) 요인은 직무 소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수교사의 일터영성 하위요인인 소명의식 요인이 높을수록 직무 소진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수교사의 일터영성이 직무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8과 같다.

Table 8. The effect of workplace spirituality on job exhaustion

| Dependent variable | Independent variable | Unnormalized factor | | Standardization factor | t/p | Tolerance limit |
|--------------------|------------------------------|---------------------|----------------|------------------------|-----------|-----------------|
| | | B | Standard error | β | | |
| job exhaustion | Constant | 4.651 | .388 | | 11.993*** | |
| | Inner consciousness | -.064 | .154 | -.064 | -.416 | .302 |
| | Vocational ritual | -.447 | .197 | -.420 | -2.266** | .206 |
| | Empathy | -.177 | .161 | -.180 | -1.104 | .265 |
| | Community consciousness | .054 | .168 | .053 | .319 | .257 |
| | Transcendental consciousness | .078 | .176 | .072 | .443 | .267 |

** $p<.01$, *** $p<.001$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특수교사의 일터영성, 교직 적응탄력성, 직무 소진과의 관계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특수교사의 일터영성이 교직 적응탄력성에 미치

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일터영성의 하위요인인 내면의식, 공동체의식 요인은 교직 적응탄력성에 긍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직 적응탄력성의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정책적지지 요인이 가장 높았으며, 사회적관계, 자기효능감, 심리적요인, 환경 및 생활만족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터영성의 하위요인인 소명의식, 공감의식, 초월의식 요인은 교직 적응탄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수교사의 일터영성 하위요인인 내면의식, 공동체의식 요인이 높을수록 교직 적응탄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둘째, 특수교사의 일터영성이 직무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일터영성의 하위요인인 소명의식 요인은 직무 소진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터영성과 직무 소진 요인은 다소 높은 수준의 음의 상관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또한 교직 적응탄력성과 직무 소진 요인은 다소 높은 수준의 음의 상관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일터영성의 하위요인인 내면의식, 공감의식, 공동체의식, 초월의식 요인은 직무 소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수교사의 일터영성 하위요인인 소명의식 요인이 높을수록 직무 소진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일터영성은 교직적응 탄력성을 돕는다는 연구[9]의 결과가 나타났으며, 특수교사의 일터영성은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침을 강조하고 있다[10]. 이는 국내 기업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와[11]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수교사의 직무에 대한 추구점이 일치한다[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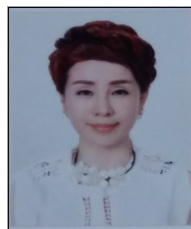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특수교사의 역할 수행을 높이기 위해 일터영성, 교직 적응탄력성, 직무 소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제공하기 위해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위와 같이 높은 행복감을 느끼는 행복감이 특수교사와 가족, 장애인 등 공동체에서 일터영성, 교사 적응탄력성은 매우 중요한 변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상의 논의 바탕으로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에서 살펴보면 본 연구는 조사지역 및 조사 대상, 방법에 한계가 있으며 제한점이 있으므로 표본 지역 확대와 비교 집단 간 연구로 폭 넓고 구체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수교사의 행복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콘텐츠 연구로 시스템을 형성하는데 활용하는 것이 유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지속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실천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References

- [1] Zigmond, N., Kloo, A., Volonino, V., "What, Where, and How? Special Education in the Climate of Full Inclusion", *Exceptionality A Special Education Journal*, Vol.17, No.4, pp.189-204, Oct 2009.
DOI : <http://dx.doi.org/10.1080/09362830903231986>
- [2] Y. S. Baek, *A Study of Grounded Theory on the Education Experience of the Physical Disabilities School Teachers*, Ph.D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Yemyung University, pp.132-150, 2018.
- [3] Garnezy, N., "Children in Poverty: Resilience Despite Risk", *Psychiatry*, Vol.56, No.1, pp.127-136, 1993.
DOI : <http://doi.org/10.1080/00332747.1993.11024627>
- [4] J. H. Park,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Resilience Scale for Elementary School Teachers*,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pp.96-106, 2016.
- [5] S. K. Yoo, H. W. Shim, "Psychological Protective Factors in Resilient Adolescents in Korea",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16, No.4, pp.189-206, 2002.
- [6] Maslach, C., Jackson, S. E., "The measurement of experienced burnout", *Journal of Occupational Behaviour*, Vol.2, No.2, pp.99-113, Apr 1981.
DOI : <http://dx.doi.org/10.1002/job.4030020205>
- [7] Emery, D. W., Vandenberg, B., "Special education teacher burnout and ACT", *International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Vol.25, No.3, pp.119-131, 2010.
- [8] J. J. Park, *The impact of Job Stress on Burnout among Public Social Workers in South Korea : The Moderating Effect of Coping Style*, Ph.D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Inje University, pp.75-81, 2015.
- [9] Lips-Wiersma, M., Mills, C., "Coming out of the closet: Negotiating spiritual expression in the workplace", *Journal of managerial Psychology*, Vol.17, No.3, pp.183-202, May 2002.
DOI : <http://dx.doi.org/10.1108/02683940210423097>
- [10] H. K. Kim, *An Empirical Study on the Influence of the Relational Dimension of the Korean Leadership Style on Employees' Creativity and Prosocial Voice Behavior : Mediating Effect of "Shinbaram" and Moderating Effect of Supervisor's Coaching*, Ph.D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Kookmin University, pp.101-112, 2017.
- [11] K. J. An, *A study on the impact of social welfare workers' workplace spirituality on resilience : based on mediating effects of organizational culture of social welfare center*,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Inje Sogang University, pp.95-102, 2018.
- [12] S. C. Roh, Y. W. Suh, "The Five-Factor Model of Workplace Spirituality: A Conceptualization and Scale Development", *Korean Journal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Vol.27, No.2, pp.419-447, 2014.
DOI : <http://dx.doi.org/10.24230/ksiop.27.2.201405.419>
- [13] Y. S. Shin, *A study regarding the effect that a long-term caregivers' perceptions of emotional leadership and experience of affective events has on the quality of service provided : The mediating effect of job satisfaction and moderating one of workplace spirituality*, Ph.D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Sungkyunkwan University, pp.125-141, 2015.
- [14] M. J. Choi, *The Effect of workplace spirituality on creativity : mediation effects of resilience and intrinsic motivation*, Ph.D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Kookmin University, pp.106-112, 2016.
- [15] Y. X. Jin, K. C. Song, "Mediating Role of Job Burnout and Moderating Role of Social Support in the relationships among Job Stressors, Emotional Labor, and Job Satisfaction", *Association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Vol.15, No.2, pp.1-36, Dec 2012.
- [16] S. C. Roh, *The Impact of Workplace Spirituality o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Ph.D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Sungkyunkwan University, pp.61-63, 2013.
- [17] Y. K. Lim, *The Relationship how to influence Social support as a coping resource from Working environment and Teaching Adaptive Resilience on Psychological Burnout of Special Education Teacher*,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Kongju National University, pp.23-24, 2013.

김미애(Mi Ae Kim)

[정회원]



<관심분야>
교육, 사회복지

- 2021년 2월 : 위덕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 박사)
- 2020년 8월 ~ 현재 : 휴3 대표
- 2020년 3월 ~ 현재 : 동방문화대 학원대학교 문화예술콘텐츠학과 교육학박사과정

조성제(Sung-je Cho)

[정회원]



<관심분야>
데이터베이스, 문화콘텐츠, 교육

- 1997년 2월 : 홍익대학교 대학원 전자계산학과(이학박사)
- 2007년 3월 ~ 현재 : 동방문화대 학원대학교 문화예술콘텐츠학과 교수